

##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?



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,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?

과학 문명이나 고고학이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밝혀 줬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'인간은 도대체 누가,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?' 라는 것입니다. "부모인 신님(아버이신님)께서 인간을 만드셨고,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함께 즐기고 싶다" 는 말밖에는 없습니다. 즐거운 삶이란 모든 인간이 서로 격려하며, 도와가며 살아가는 세상. 모두의 소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쓰기 부터!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##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?



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,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?

과학 문명이나 고고학이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밝혀 줬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'인간은 도대체 누가,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?' 라는 것입니다. "부모인 신님(아버이신님)께서 인간을 만드셨고,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함께 즐기고 싶다" 는 말밖에는 없습니다. 즐거운 삶이란 모든 인간이 서로 격려하며, 도와가며 살아가는 세상. 모두의 소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쓰기 부터!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어떤 것도 시순이 있다. 시순을 놓치면 씨를 뿌려도 싹이 트는 것도 있고 안 트는 것도 있다.

(계시록 · 지도말씀 = 1895.5.12)

씨앗을 뿌리는 시기에는 꼭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. “줄탁동기(啐啄同機)” - 병아리가 부화하려고 할 때, 어미 새가 타이밍이 좋게 알껍데기를



짜 주는 것. 육아에도 제철이 있습니다. 아이가 성장하려는 때를 보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. 무턱대고 물건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일을 시켜도 효과는 기대할 만큼 바라지 못합니다. 가장 좋은 시기에 손을 내밀고, 그 후에는 성장하는 것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면 됩니다. 신님께서는 “서두르면서 서루드지 않는 길” 이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.

어떤 것도 시순이 있다. 시순을 놓치면 씨를 뿌려도 싹이 트는 것도 있고 안 트는 것도 있다.

(계시록 · 지도말씀 = 1895.5.12)

씨앗을 뿌리는 시기에는 꼭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. “줄탁동기(啐啄同機)” - 병아리가 부화하려고 할 때, 어미 새가 타이밍이 좋게 알껍데기를



짜 주는 것. 육아에도 제철이 있습니다. 아이가 성장하려는 때를 보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. 무턱대고 물건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일을 시켜도 효과는 기대할 만큼 바라지 못합니다. 가장 좋은 시기에 손을 내밀고, 그 후에는 성장하는 것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면 됩니다. 신님께서는 “서두르면서 서루드지 않는 길” 이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.